

# ‘병오년’ 전남 말(午) 관련 지명 ‘전국 최다’

나주 마제촌·담양 다마산 등 유래...216곳 분포  
마을·거리·섬·고갯길...이동·생존·교류 역사 담겨

붉은 말띠 해인 2026년 병오년 전국에서 말 관련 지명이 가장 많은 곳이 전남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와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따르면 전국에 고시된 지명 10만여개를 분석한 결과 말 관련 지명 820여곳 가운데 전남이 216곳에 달했다.

십이지 가운데 말은 일곱 번째 동물로,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를 나타내며 씩씩하고 역동적인 기상을 상징한다.

전남 지역 말 지명은 마을이 12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섬 44곳, 산 23곳 등 순이

다. 시·군별로는 신안군이 32곳, 진도군·완도군·해남군이 각각 14곳으로 뒤를 이었다. 말 지명이 가장 적은 곳은 곡성군(3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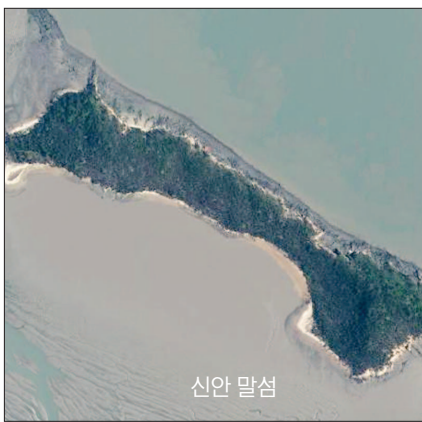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이동과 생존, 교류의 역사를 품은 지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곳이 나주시 다시면 ‘마제촌(馬蹄村)’이다.

이곳은 마을 지형이 말발굽처럼 휘어져 있다는 데서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전해진다.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말발굽 안



에 마을이 들어앉아 재물이 모인다’는 풍수적 해석도 내려온다. 실제로 조선시대 이 일대는 영산강 물길을 따라 물산이 오가던 교통 요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 몽탄면 ‘하마거리’는 말에 대한 설화가 있는 지명이다. 말을 타고 오던 이



들이 말에서 내렸다는 의미인 ‘하마(下馬)’가 지명에 붙은 것으로, 무안 일대는 서해 포구와 내륙을 잇는 관문 역할을 했고, 하마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중심지였다.

섬 지역의 말 지명도 눈길을 끈다.

신안군은 ‘마을’, ‘마동’, ‘마동’ 등 말 관련 지명이 20여 곳이 넘는 지역으로, 해상 교통과 말의 이동 경로가 맞닿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마섬’은 섬의 형태가 바다를 향해 달려나가는 말을 닮았다는 데서 이름이 붙었다. 파도가 거셀수록 말이 바다를 향해 몸을 낮추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도초면 만년리에 있는 섬은 그 모양이 말처럼 생긴 말섬(馬島)이 있다. 장마도는 섬 모양이 말이 출저어 걸여가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 해서 장마도(長馬島)라고 불린다.

영광군에 위치한 안마도는 섬 지형이 말안장과 닮아 붙여진 지명이다.

보성군에는 ‘말고리재’, ‘마산리’ 등 말

이 쉬어 가던 고갯길과 방목지에서 유래한 지명이 남아 있다.

장흥군에는 말을 매어두던 곳에서 비롯됐다는 ‘마계(馬繫)’, 영광군에는 말 사육과 관련된 ‘마촌’ 지명이 전해진다. 섬의 지형이 말의 안장처럼 생긴 안마도(鞍馬島)라는 곳도 있다.

전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전통 설화 속 말은 신성한 존재로 등장한다. 전남 곳곳에는 천마가 하늘과 땅을 오가며 복을 내렸다는 이야기, 말이 멈춰 선 자리에 마을이 형성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면서 “말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길을 열고 터를 정하는 존재로 보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지명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강진영화관 ‘영화가 있는 하루’ 새해도 계속  
군민 누구나 관람료 할인·참여형 이벤트 풍성

강진군민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강진영화관 ‘영화 보는 날’ 프로그램이 올해도 이어진다.

‘영화 보는 날’은 강진영화관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할인 상영을 통해 군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생활문화 정책이다.

강진영화관은 개관 이후 지속적인 할인 상영과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누적 관람객 2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 내

문화시설로서 강진영화관의 역할과 군민 수요를 입증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과 명절·공휴일 등을 연계해 ‘영화 보는 날’을 운영하며, 관람료 할인과 함께 군민 참여형 문화 이벤트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화관 이용 활성화는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광양시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국제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국제협력 기반을 끌어올렸다. 사진은 중국 선양시 피스컵 축구대회 우승 모습. 사진제공=광양시

## ‘광양형 국제협력 모델’ 토대 마련했다

국제교류·다각적 외교·실질 교류 등 ‘3개 성장축’

광양시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국제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국제협력 기반을 끌어올렸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미래세대 중심의 전략적 국제교류, 도시브랜드 강화 등을 위한 다각적 외교와 국제 자매·우호도시 저변 확대, 지역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실질적 교류협력 확장 등 ‘3개 성장축’이 균형 있게 강화되며, 광양형 국제협력 모델의 토대가 공고해진 해로 평가

된다.

‘광양시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5 지방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전국 우수사례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 사업은 광양시가 지원한 지점을 마련해 해외 교류학교 매칭, 통역 및 예산을 지원하고, 참가학교가 자율적으로 상호 방문 교류를 추진하는 플랫폼형 청소년 국제교류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 지원·운영 체계 구축 이후 현재

까지 14개 초·중·고등학교가 해외 14개 도시 22개 학교와 매칭돼 총 97회의 방문 교류가 이뤄졌으며, 청소년 1600여명이 국제교류를 경험했다.

경제·문화예술·스포츠 등에서 국제교류 성과가 가시화됐다.

상반기에는 중국 자매도시 선전시와 벤처기업 육성 협력을 위한 화상회의, 필리핀 까가얀데오로시 상공회의소 및 기업인 연계 경제 화상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2026년을 실행 중심·실질 교류·도시경쟁력 강화의 해로 설정하고 국제협력 정책을 한층 구체화할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신안 흑산면 심야약국 운영  
주민·관광객 의료 접근 강화

신안군이 원거리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야간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나선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흑산면 소재 독심자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공공심야약국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판매는 물론 복약지도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흑산면은 신안군의 대표적인 도서지역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리적 특성상 심야 시간대 약국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지정으로 주민과 방문 관광객의 응급 의약품 구입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흑산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흙어 등 특산물로 유명한 관광지로, 최근 관광객 증가로 의료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김현희 신안군 보건소장은 “365일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 흑산면 약국에서 운영됨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와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보건 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안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도서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해남,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건립

해남군은 전남도가 추진한 2026년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축산농가에 필수적인 각종 기자재를 한곳에서 구입하고, 품질·가격·제품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축산기자재 종합물류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최대 20억원을 투입해 해남읍 북평리 일원에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전시·판매시설을 비롯해 사무실, 창고, 편의시설 등 기자재 유통을 위

한 종합 건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기자재 유통·판매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한 거래를 지원하는 전자시스템, 상·하차, 운반장비 등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장비도 함께 구축된다.

특히 조사료 TMR(섬유질배합사료) 공장 등 기존 축산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축협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자재 구입부터 정보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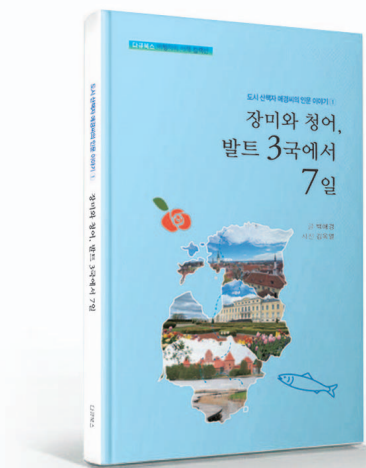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기획부터 인쇄까지!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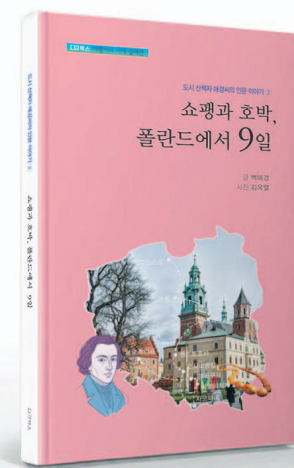
다큐 디자인 시안해북 많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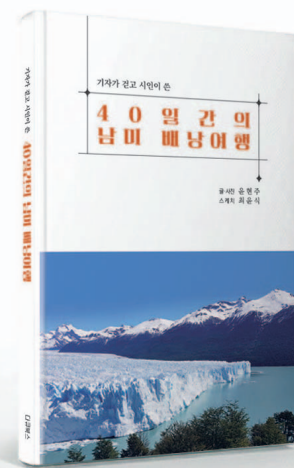
## 책을 출판하고 싶으십니까?



백매경, 《장미와 청어, 발트 3국에서 7월》, 18,000원



백매경, 《소행과 호박, 폴란드에서 9월》, 18,000원



유현주, 《40일간의 남미 배낭여행》, 20,000원

다큐디자인은 이런 일을 합니다

- ✓ 사보, 사사, 회보, 문중사, 자서전, 회고록 등 개인과 단체의 역사를 기획, 편찬 전문 회사입니다
-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 신문, 잡지, 교지 등을 바꾸거나 창간하실 분